

자켓용 의복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연구

김 희 숙*(해전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나 미 희 (해전대학 패션디자인과 강사)

최근의 의류제품에 있어서 소재의 변화로써 디자인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제품의 평가에 소재의 특성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유행 및 마케팅 등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복소재의 선호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복 품목에 대한 대학생의 소재 선호도 조사의 일환으로 자켓용 소재의 선호도를 계절별 및 소재의 특성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의류학 전공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재 선호도는 패션 소재북에 제시된 120종의 직물에 대하여 가장 선호하는 3종의 직물을 순서대로 평가하게 하여 선호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빈도와 퍼센트를 평가한 후, 각 계절별로 상위 10종류의 소재 및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비교하였다. 대학생들이 자켓용 직물로 선호하는 소재를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봄·가을용 자켓 소재로 가장 선호되는 소재는 두께 0.86mm, 중량 1.99g인 브라운과블랙 색상의 선염 모 직물인 바스켓 조직의 Crossbred로 나타났다.
2. 여름용 자켓 소재로는 두께 0.26mm, 중량 0.55g인 화이트 색상의 먼 평직물 Plissé를 가장 선호하였다.
3. 겨울용 자켓 소재로는 두께 1.33mm, 중량 3.35g인 그레이와 블랙 스트라이프 무늬의 먼 Corduroy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자켓용 소재의 두께와 중량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겨울용 자켓 소재는 다른 계절보다 두껍고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선호 소재의 조성섬유로서, 봄·가을용과 겨울용은 모 섬유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여름용으로는 먼 섬유를 가장 선호하여서 대부분 천연섬유를 선호하였다.
6. 직물 조직에 있어서 봄·가을용 소재는 변화조직을 가장 선호하고 겨울용으로는 능직과 변화조직을, 여름용은 평직을 가장 선호하여서 전체적으로 변화조직의 선호도가 높았다.
7. 대학생들은 자켓용 소재의 무늬로 체크무늬를 가장 선호하였고 색상으로는 브라운, 베이지, 블랙의 선호도가 높았다.
8. 남·여 대학생간의 선호소재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두께가 더 얇은 직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학생들은 셔츠용 소재로는 블루계열 색상의 무지 먼 평직물을 가장 선호하고 슬랙스용 소재로는 블루계열 또는 블랙색상의 무지 모 능직물을 가장 선호하며, 자켓용 소재로는 브라운, 베이지 색상의 체크 또는 선염의 변화조직 모직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